

중소 복지증진 위해 3부처 맞손

중기부

고용부

동반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활성화

복지기금 최대 7년간 30억원 지원
산단 중심 ‘설립 지원 협의체’ 구성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손잡았다. 중기부와 고용부, 동반위는 고용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중기부의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동반위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이 궁극적으로 임금·복지양극화해소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는 점에 동의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도 발표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해 기금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규제를 줄이고 재정지원을 확대해 제도를

개선한다. 기금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 ‘일터혁신’ 지원에 협력해 중소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근로의 질과 생산성, 품질 수준 등 성과를 높인다.

중기부는 근로 복지와 생산성 제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복지 강화를 위한 자발적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등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금 참여 중소기업에 선택적 복지 서비스 인프라를 홍보·안내한다.

동반위는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을 통해 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유도한다. 동반위는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것도 상생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 의욕 증진과 복지격차 완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단 점에 공감해 이를 이용할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각종 제도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하고, 재정지원 확대, 설립·운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6년 1월 시작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는 가입·탈퇴의 엄격한 제한 등 제도가 경직돼 있고 설립·운영 과정에서 전문적인 컨설팅과 재정지원 부족 등으로 기금 설립이 미진했다. 고용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어 기금 설립을 촉진한다. 중소기업을 포함해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까지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기금은 출연금의 50%, 중소기업은 80%까지 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탈퇴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4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협약서에 서명한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기금 중간 참여와 탈퇴 및 탈퇴 시 재산 처리 방법 등 규정이 없어 혼선을 초래해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기금 탈퇴 시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출연한 비율만큼의 자금을 해당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개별 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 근로자 보호에 사용된다.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남은 재산은 근로자에게 생활 안정 자금으로 지원한다. 지금까지 특정 기업만 사업을 폐지할 경우 출연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어 근로자 보호에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30개소 이상 사업장이 참여하거나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일

경우 5년간 20억까지 지원한다. 50개소 이상 사업장이 참여하고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가 1500명 이상일 경우 7년간 30억까지 제공된다.

대기업의 상생협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협력 중소기업 등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정부 지원액도 최대 10억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공동복지기금 설립 지원 인프라도 확충된다. 고용부는 주요 산업단지 중심 지역 단위 노사단체·근로복지공단·산업단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지원 협의체’를 구성한다. 민간영역에서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도 돕는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부터 회계, 결산까지 표준화된 실무 매뉴얼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metroseoul.co.kr

韓-아세안, 국경없는 스타트업 단일시장 구축

중기부, 미얀마·라오스 관계부처와
노하우 전수, 생태계 육성 등 MOU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 생태계가 태동하고 있는 미얀마와 라오스에 한국 스타트업 육성 경험을 전수하고, 한·아세안 스타트업 단일시장 구축 발판을 마련한다.

중기부는 지난 3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계기로 미얀마 중소기업개발위원회와 스타트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오는 5일 라

오스 비엔티엔에서 라오스 상공부와 스타트업 정책 전수 및 교류와 더불어 양측간 중소기업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스타트업이 발전하고 있는 미얀마와 라오스에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한국·미얀마·라오스의 스타트업 협력과 발전을 위한 기반도 다진다.

중기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동남아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과의 다자협력으로 발전시켜 한국과 아세안

의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교류·협력할 수 있는 스타트업 단일시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과 미얀마·라오스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타트업 및 혁신 정책과 프로그램 경험 공유를 위한 정책 대화 개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정책 및 인적 교류 협력을 위한 공무원과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킹과 초청 연수 사업 추진 ▲한·아세안 간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 및 통합을 위한 공동협력 등 사업을 진행한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국내외 에듀테크 기술 한자리에 ... ‘이러닝 코리아’ 개막

오늘부터 사흘간 코엑스서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5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디지털 시대, 교육의 미래를 여는 에듀테크’를 주제로 ‘2019 이러닝 코리아 : 에듀테크 페어&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에듀테크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라인 교육(이러닝)을 넘어 학습자 맞춤형 교육, 교사 업무 경감 등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VR/AR·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콘텐츠·솔루션·하드웨어·시스템 등에 접목한 제품과 서비스다.

이번 행사는 국내 우수 기업의 에듀테크 제품을 소개하고 해외 진출을 촉

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에듀테크 페어(전시회)와 5, 6일 양일간 진행되는 전 세계 교육 혁신 관련 전문가 초청 콘퍼런스(강연회)로 구성됐다.

에듀테크 페어에서는 국내·외 120여 개 기업이 에듀테크 기술을 선보인다. ▲가상현실·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실감미디어관’ ▲코딩·메이커 교육을 전시하는 ‘창의융합관’ ▲개인 맞춤형 학습 서비스 관련 ‘인공지능(AI) 학습관’ 등이 꾸려진다.

중기부의 메이커 스페이스관에서는 3D프린터 등을 이용해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하는 메이킹 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 교육부는 미래교육관을 마련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시연과 소프트

웨어 교육 체험, 브이로그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산업부의 우수기업관에서는 수출 유망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소개된다.

콘퍼런스에서는 미래 교육에 대한 강연이 열린다. 기초 연사로 나선 한양대 김창경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려면 최적의 교육 플랫폼을 사용하라’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프랑스 에콜 42 설립자인 니콜라 사디락은 ‘새로운 SW 교육 방법’에 대해 강연한 뒤 대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디지털 시민성·인공지능이 바꿀 교육·SW 인재상·게임이피케이션 등 학교 미래 교육 산업과 글로벌 IT 기업 교육·MOOC·새로운 HRD 등 평생교육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배한님 기자



자이글, ‘ZWC 페이스&바디마스크’ 출시

자이글은 전신에 사용할 수 있는 돔 형태의 ‘ZWC 페이스&바디마스크’를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ZWC 페이스 & 바디마스크’는 LED와 고농도 산소로 얼굴은 물론 목, 두피, 복부, 다리, 손 등 전신 피부의 탄력

을 높이고 톤업을 해준다. 부위별 자동 관리 10개 모드가 탑재됐다. 활성·진정·복합·오토·토탈·웨이브 등 6가지 관리 매뉴얼 모드로 원하는 형태의 관리도 가능하다.

/배한님 기자

로지스팟, ‘세일즈 컨설턴트’ 도입

통합운송관리 서비스 기업인 로지스팟은 디지털 화물운송 서비스 기업 최초로 ‘세일즈 컨설턴트’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세일즈 컨설턴트’ 프로그램은 운송업체 및 여러 산업 종사자가 ‘세일즈 컨설턴트’로 등록한 뒤, 자사의 고객 네트워크를 이용해 화물 및 물류 운송이 필요한 기업 담당자를 로지스팟에 소개하고, 동반 영업을 하면서 거래가 성사되었을 경우 수익을 서로 분배한다. 로지스팟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운송업체

종사자와 다양한 산업의 종사자들과 함께 상생하면서 운송 시장의 디지털화를 확대한다.

로지스팟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플랫폼 이용에 대한 사용자 교육, 운영업무 및 사후 고객 케어 등의 업무를 대신 해준다. 기존 운송사와 종사자는 추가 비용이나 부담 없이 본업에 계속 충실하면서도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고객관리와 수익 확대를 할 수 있다.

/배한님 기자